



보도시점 2025. 8. 12.(화) 16:00
8. 13. (수) 조간

배포 2025. 8. 12.(화) 09:00

가축분뇨로 전기 생산한다! 연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 등 18개 기관 참여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Kick off 회의) -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8월 12일(화)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고체연료, 왜 지금 주목받나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어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악취 발생을 줄이고, 농장 내 위생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또 발전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원 공급 뿐만 아니라 유연탄 같은 수입 화석연료 대체 효과 또한 기대 가능하며,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도 낮출 수 있어, 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미 시험 발전 성공... 남은 과제는?

정부는 농협·한국남부발전·남동발전과 함께 고체연료 시험 발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를 통해 산업 활용 가능성과 초기 수요를 확보했다. 다만, 대규모 활용을 위해서는 염소 등 부식 유발 성분 저감 등 품질개선, 고체연료 품질 기준 합리화, 생산시설의 신속한 구축 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 관련 다부처 R&D를 기획하는 한편 고체연료 활성화 방향 설정 등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동기획단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 공동기획단... 민·관·학이 지혜를 모은다.

8월 12일 열린 공동기획단 착수 회의(Kick off 회의)에서는 고체연료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한전, 발전사 등 에너지 분야 측에서는 고체연료가 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량 사용을 위해서 발전설비 보완을 통한 고체연료 대응력 강화, 열량·제형 등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 지자체 등 농업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를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화하는 방식이 자원 순환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행 법령상 품질 기준은 가축분뇨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를 맞추기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축분뇨법령에 따른 고체연료 품질 기준의 합리화와 농가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2030년까지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의 한 축으로

공동기획단 김종구 단장은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R&D 투자, 규제 개선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재생에너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기획단은 가축분뇨 ‘퇴비’를 ‘에너지’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통해 지역단위의 에너지 자립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동기획단 킥오프 회의 개요. 끝.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이승환 (044-201-2357)
담당 부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김경록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장재훈 (044-201-7076)

□ 회의 개요

- (일시) '25.8.12.(화) 14:00 ~ 16:00
- (장소) 농림축산식품부 4층 대회의실(464호)
 - * 상세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4층
- (참석기관) (부처)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농진청 (지자체) 경북, 전북, 전남, (생산 및 활용) 농협, 남부·남동발전, (유관기관) 농기평, 에기평,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축산환경관리원, 우송대학교 등

□ 주요 내용

- 공동기획단 개요 및 운영 방향 안내
-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내빈 소개	축산환경관리원
14:10~14:15	(5')	· 인사 말씀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14:15~14:20	(5')	· 기획단 개요 및 운영 방향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14:20~14:40	(20')	· 고체연료 활성화 논의 과제 설명	농식품부 담당자
14:40~16:00	(80')	· 토론	